

“인문도시 구축으로 도시 브랜드 강화”

민선8기 2주년 임택 광주 동구청장 ‘인문도시’ 도시브랜드 공식 선포 ‘인구 증가·체류형 관광도시 구축’

광주 동구가 민선 7·8기 출범 이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SA)을 획득하는 등 주요 역점 사업들이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주요 성과는 ‘도시 이미지 쇄신과 인구 증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구축’, ‘따뜻하고 세심한 동구형 공감 복지 정책’, ‘5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 획득’, ‘인문도시 조성’과 도시브랜드 탄생’ 등이다.

이는 민선 7기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난 6년간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매진해 온 결실로, 동구만의 도시브랜드를 구축해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1일 민선 7·8기와 궤를 함께 해 온 ‘인문도시’를 도시브랜드로 전 국민에게 공표하며 민선 8기 출범 2주년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1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과 함께 마련되는 도시브랜드 비전선포식에 앞서 임택 청장은 “도시브랜드는 단 한번의 ‘선

언’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주민과 함께 6년간 공들여 축적해 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선포식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적 가치를 되새기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문도시 광주 동구’로 진입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도시브랜드 ‘인문도시 광주 동구’는 모든 정책에 인문을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주민의 인문 활동이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갖춘 건강한 도시 △주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하며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도시 △주민들의 나눔과 소통이 활발한 따뜻한 공동체 도시 △미래세대의 인문적 소양을 높이고, 다양한 꿈을 키워주는 도시 등 5가지 지향점을 내세웠다.

지난 6년간 ‘인문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건강한 도시환경 안에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도시를 짚었다. 급속한 산업·도시화 과정에서 겪는 물질만능주의, 공동체 붕괴,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문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적 가치를 통해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임 구청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행복한가”라는 화두를 통해 주민들



임택 광주 동구청장.

이 ‘365일 설레이는 36.5°C 따뜻한 행복 도시’의 삶을 추구하기로 했다”며 “역사, 문화, 철학을 아우르는 인문학적 소양을 토대로 한 도시환경을 조성한 지 어느덧 6년째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5가지 지향점을 토대로 추진해 온 ‘책 읽는 동구’, ‘인문 동아리’, ‘북페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문적 활동을 지원했고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심기 위한 기록도 한몫했다. 독립운동가, 건축가, 여성운동가 등 지역 출신 인물에 대한 기록부터 평범한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까지 모두 담아 후세에 전하며 존

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신적 경쟁력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8·9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동구민 구정 운영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800여명이 현재 추진 중인 구정 운영 6대 분야 중 ‘인문도시’ 정책에 대해 36.1%가 만족했다. 특히 동구만의 특색 있는 ‘인문도시 동구’라는 도시브랜드 구축에 대해서도 81%가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인문도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삶의 가치와 행복’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는 ‘광주 동구 주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싶다”면서 “홀로서기 보다는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주 동구하면 ‘인문도시’가 떠오를 수 있도록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8기 동안 줄곧 주민 편의와 행복,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웃 간 정(情)이 넘치는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2년도 각종 성과를 바탕으로 역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인문도시 광주 동구’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발의 임성화 서구의원



임성화(사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광주 자치구 최초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광주 서부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난 4월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광주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2021년 전격 시행된 자치경찰사무를 서구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광주 자치구 최초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자치경찰사무 지원 △서구의회·서부경찰서·서부교육지원청·서부소방서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서구에 맞는 자치경찰사무가 전무한 상황이다”며 “서구청과 서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치안서비스가 필요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서구 맞춤형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이뤄지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성아 기자

‘HOPE STREET’ 조성 계획 공개 복구, 지역 명소 만들기 프로젝트

광주 복구가 지역 명소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HOPE STREET(희망의 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전략 및 디자인 계획을 공개했다.

30일 복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삼각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 3층 세미나실에서 ‘HOPE STREET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시설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밝힌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꿈(Dream)과 청소년(You), 희망(Hope)이다.

복구는 이 키워드들을 연결해 ‘Dream your Hope!’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아이들이 마음껏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꿈을 키우고 희망을 응원하는 공간 조성 △밝고 안전한 누구나 걷고 싶은 길 조성 등의 전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사업대상지인 북구 삼각·일곡동이 17개 학교가 밀집하고, 인구의 20% 이상이 청소년으로 구성된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희망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인 결과다.

이에 따라 본격 추진될 HOPE STREET는 울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원 스포츠 3곳(가작어린이공원·비둘기공원·일곡제2근린공원) △거리 포토존 6곳(서일초·일곡초·일곡중·국제고·일곡·삼각마을) △청소년 거점센터 2곳(남도향토음식박물관·일곡중)이 조성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운상원길 명예도로 걷기 행사 광산구, 오월 광주정신 계승

5·18 시민군 대변인 고(故) 운상원 열사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지정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광주 광산구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명예도로 걷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운상원길을 걷다, 민주주의를 품다’를 주제로 개최한 걷기 행사는 명예도로명 부여를 기념하고, 오월 광주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 사단법인 운상원 기념사업회, 5·18 단체, 천동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이 임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운상원민주로’, ‘운상원길’을 따라 걸었다.

최종 도착지인 ‘운상원기념관’에선 참여한 시민이 길을 걸으며 들었던 생각과 소감을 나누고, 열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뜻에서 모두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달 25일 운상원 열사의 고향인 임곡 천동마을 내 천동길 329m를 ‘운상원길’로, 또 마을로 향하는 임곡로 일부 5.7km(임곡동 행정복지센터-진곡교차로) 구간을 ‘운상원민주로’로 고시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운상원길, 운상원민주로는 운상원이라는 한 개인을 넘어 민주주의·인권·공동체를 지키고 가꾸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열사의 삶과 정신을 미래 세대와 함께 공감하며 실천하는 길이 되도록, 많은 분이 걷고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동구 인문도시 선포식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주민 등이 지난달 29일 동구 인문대학에서 ‘인문도시 광주 동구 도시브랜드 선포식’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남구, 제5기 ‘톡톡 SNS 기자단’ 발대식 개최

인적 구성·운영 방식 쇄신 20~30대 참여 비율 높아 파워 블로거 등 대거 포진

동영상과 블로그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광주 남구 주민들이 구정 등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제5기 남구 톡톡 SNS 기자단 발대식이 지난달 28일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발대식에는 공개 모집 과정을 거쳐 선발된 영상 크리에이터 6명과 블로거 4명 등이 참석했다.

제5기 남구 톡톡 SNS 기자단은 인적 구성에서 기존의 기자단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남구는 구정 현장의 생동감과 동네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자단 구성 및 운영에 쇄신을 단행했다.

특히 구정에 대한 홍보 효과 극대화와 22만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정보 소비자의 최신 경향을 적극 반영, 1인 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쇼츠 영상 제작을 통한 차별화 마케팅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5기 기자단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면면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짧은 영상을 통한 정보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20~30대 기자단 참여 비율이 높았다.

전체 선발인원 10명 가운데 4명이 20~30대로 확인됐고 8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영상 크리에이터를 비롯해 동영상 촬영

역과 편집 능력까지 갖춘 실력자들로 구성됐다.

40~50대 구성원들 또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자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경력을 갖추고 있다.

제5기 남구톡톡 SNS 기자단은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매월 한차례 이상씩 구정 및 마을 이야기를 전하는 소식통으로 활약하면서 22만 남구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남구 관계자는 “열정이 넘치면서 뛰어난 실력까지 갖춘 분들께서 대거 기자단에 포진함에 따라 이들의 활약상이 벌써 기대된다”면서 “남구의 구정과 동네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재미있고 친근감 있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